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조남철 전화 02-3270-4391	보도자료 2024. 7. 17.(수)
제 목	서울서부 지역 검찰·경찰 「여성·아동·스토킹범죄 대응 실무협의회」 개최	

-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김선화)은 전일(7. 16.) 서울 마포서, 서대문서, 서부서, 용산서, 은평서와 함께 여성·아동·스토킹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실무협의회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교제폭력 및 살인, 스토킹범죄에 대응하여 검찰, 경찰이 상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4. 1. 12.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 방안 및 교제폭력 등 범죄에 대한 엄정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서울서부지검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여성·아동·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회의 개요

- 개최 배경
 - 서울서부지검 관할 지역에는 다수의 대학이 밀집되어 있고, 이태원과 홍대 일대 등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음
 - 그런데 최근 건전한 문화활동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교제폭력·교제살인, 스토킹, 불법촬영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검찰·경찰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범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할 필요 있음
 - ※ 관내 송치 사건 기준, 스토킹범죄와 불법촬영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스토킹범죄 : '22. 217건 → '23. 302건 → '24. 상반기 198건 / 불법촬영범죄 : '22. 221건 → '23. 236건 → '24. 상반기 117건)

● 일시·장소

- 2024. 7. 16.(화) 11:00~12:00, 서울서부지검 중회의실

● 참석자

- 검 찰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 검사 3명 (총 4명)
- 경 찰 : 관내 5개 경찰서 여청수사과장, 팀장 등 (총 11명)

2 주요 회의 내용

● 검찰 · 경찰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교제폭력 및 교제살인 범죄 관련 대검 업무 연락의 주요 내용 설명 및 '24. 상반기 중 주요 검경 협력 사례 소개
- 여성·아동·스토킹범죄를 전담하는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관내 경찰서간 실시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적극 활용

- '23. 7. 11.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 제도」가 도입되어 '24. 1. 12.부터 시행되었음
- '24. 6.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최초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허가 결정을 받은 사례를 공유하고, 스톱킹행위의 구체적 행위 태양·범죄전력·선행조치 위반·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 설명
-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법적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 **엄정대응 필요성 및 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

- 스토킹사범, 교제폭력·교제살인사범,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사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 범죄피해자가 일상 생활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긴급 생계비지원, 예술심리치료지원*, 진료비 및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 삭제 의뢰 등 다각도의 피해자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

*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등 범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전문가를 연계하여 예술매체를 통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제도

3

향후 계획

- 서울서부지검은 향후에도 경찰은 물론 법원, 지자체 등 관내 유관 기관 및 시민단체와 함께 여성·아동·스토킹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범죄로부터 관내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